

걸어서 10분이면 만나는 곳, 책향기 가득한 ‘도서관의 도시’

2003년 ‘기적의 도서관’ 개관후
작은 도서관 47개 등 총 54개나
국내 첫 ‘그림책 도서관’도 문열어

시에선 인문학 책값 30% 지원
시민들 적극 동참 독서문화 확산
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큰 인기

■ 6개 도서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기간 및 시간
삼산 도서관	탈무드 하브루타	4. 12 ~ 7. 19
	도서관에서 만나는 논어	매주 화 10시 ~ 12시
연향 도서관	책 읽고 발표하기	매주 금 17시 ~ 19시
	책 읽고 발표하기	매주 목 16시 ~ 18시
호수 도서관	STEAM 과학교실	매주 금 16시 ~ 18시
	인문학 책 읽기	격주 토 10시 ~ 12시
기적의 도서관	명심보감·노자	매주 금 10시 ~ 12시
	영유아 책읽기와 책놀이	매주 목 14시 ~ 16시
풍덕 클마루	그림책놀이교실	매주 목 10시 ~ 12시
	글쓰기 교실 1	매주 목 14시 ~ 16시
해룡 도서관	글쓰기 교실 2	매주 목 16시 ~ 18시
	찾아가는 독서교실	매주 월, 목 13시 ~ 15시
해룡 도서관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매주 월, 목 9시 ~ 11시
	책 놀이터	매주 목 10시 ~ 12시
해룡 도서관	도서관 책 친구	매주 목 9시50분 ~ 11시50분
	책읽어주기 활동가양성	매주 화 10시 ~ 12시
해룡 도서관	초등학생 인성 문지해독 교육	매주 월, 수 10시 ~ 12시

순천시가 ‘도서관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미 47번째 ‘작은 도서관’이 개관(지난해말 기준)했고, 공공 도서관 7곳을 포함한 모두 54개의 도서관이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첫 ‘그림책 도서관’도 문을 열어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췄다.

지난 2003년 전국 처음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한 뒤 매년 도서관 시설을 꾸준히 늘려 인구 30만명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도서관을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이 이끈 순천의 기적〉=기적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순천시가 ‘도서관 도시’가 된 것은 지난 2003년 시민단체인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와 한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 순천에 국내 최초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개관했다.

순천시가 도서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도서관 건축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도서 구입 및 기타 소프트웨어 등을 시민단체와 방송국이 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부지면적 4204㎡, 건축 총면적 1304㎡의 지상 2층 규모다.

아동문학에서부터 역사·자연·과학·환경·지리·그림책·만화에 이르기까지 도서 5만892권과 시청각 자료 1229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5개월의 공사를 거쳐 동외동에 위치한 순천 중앙도서관을 지상 2층 연면적 2210㎡(670평) 규모의 ‘그림책 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그림책 도서관’은 어른들의 잊혀진 감성을 깨워주고,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꿈과 상상을 키워줄 신개념 문화공간이다. 개관 후 그림책 열람·대여는 물론 국내의 유명 그림책 작가의 그림 작품 전시회와 체험, 그림책 인형극, 각종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의 원서를 수집 연구할 수 있는 그림책 연구실과 최신 팝업북, 플랩북, 최신 그림책 등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



지난 2003년 문을 연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내부. 순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도서관을 건립, 현재 공공도서관 7곳, 작은 도서관 47곳 등 총 54곳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일보 DB>

볼 수 있는 그림책 자료실도 마련했다.

〈책 읽는 도시 문화 조성〉=‘도서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시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한 몫 했다.

순천시는 올해 시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에 대해 책값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의 좋은 책 읽기 운동은 시와 관내 서점이 협력해 시에서 20%, 서점에서 10%의 책값을 지원하며 전문가 추천 도서를 구입할 때 할인권을 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상 서적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30종과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10종, 순천의 책 읽시터 원북 10종, 인문

학 강의 교재 등 19종으로 모두 69종이다.

순천시는 이번 운동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영세한 지역 서점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책 읽어주기 시민운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연계한 독서 캠프 등 도서관 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 콘서트, 저자 초청 콘서트, 문학기행, 책 읽어 주는 라디오 독서토론회 등의 시책도 추진한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도서관의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공공도서관 중 삼산도서관 6개 도서관이 올해 이색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놨다. <표 참고>

삼산 도서관의 ‘탈무드 하브루타’(havu-

ruta)는 유대인식 토론 수업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짝을 지어 주제에 맞게 질문을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다.

연향도서관의 청소년 인문학 학교는 사계절 출판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인문학 관련 작가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또 ‘기적의 도서관’에서도 영유아들이 책을 읽으며 놀 수 있고, 유치원생들을 위한 책 교실, 어린이사설 교실 등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순천시 도서관’(www.sclibrary.or.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다문화가족 안전사고 대비 순천경찰서 범죄예방 교실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6·4 지방선거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교통사고, 폭발사고대 행동요령과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순천경찰은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외국인사회통합센터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고용산업체 근로자 등을 찾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 등 5개 외국어로 제작된 선거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순천 관내에는 외국인 1677명 중 83명이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고 있다.

우형호 서장은 “관내 체류하고 있는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 교실을 연중 운영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순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베트남 대표단 순천 방문

생태관광산업 벤치마킹

베트남 정부대표단이 지난 22~26일 5일 동안 생태관광산업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을 방문한다.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베트남 국가 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 및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천을 찾았다.

대표단은 순천 전통 아생차 체험관 방문을 시작으로 순천만정원과 생태공원을 관람하고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한옥체험을 했다.

대표단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과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개 및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에코(Eco) 관광으로 연계 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계기로 순천시의 생태관광(Eco-Tourism)을 국내외로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문화의 거리’ 이야기 더 많아진다

순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가 2014년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심재생 선도지구 구역 안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심재생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순천시 원도심의 항동과 중앙동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포함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의 거리’에는 에코 지오창작촌과 빈 건물을 활용한 예술학교 운영, 창작 스

튜디오, 초미니 음식점, 타임테라 ‘느린 우체통’ 설치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시는 도심재생 사업과 별도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위해 옛 조상들의 숨결이 녹아있는 부읍성터 이미지 복원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성터내 미보상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후 철거해 성곽 이미지 복원과 함께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2015년에 유교문

도심재생 선도지구에 포함 원도심 200억 투입 활성화

화의 상징인 순천향교와 인접한 곳에 ‘선비문화 체험관’을 건립해 전통혼례, 전통예절 및 한자교육 등 옛 선비정신 계승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의 거리’ 사업을 근대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산동 선교역사 유적지와도 연결해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 문화로 힐링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문화의 거리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문화의 거리내 문화예술업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현재 문화관련 업종 43개소가 운영



기독교역사박물관

되고 있다”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등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

Eco Dome House

에코돔하우스

웰빙시대와 친환경 건축자재의 선택!

에코돔하우스는 세계 유일의 레고 조립형(특허) 초경량 단열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시공 가능하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 이지골드코트의 성능을 고스란히 등에 접목시킨 **기능성 친환경 돔하우스**입니다.

에코돔하우스 기능성
불연 / 절로방지 / 원적외선 방출 / 음이온 발생 / 탈취 기능 / 항곰팡이 기능 / 항균 기능 / 복사열 방지 / 친환경 건축자재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6이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